**가로 폭포**

높이 12m의 이 폭포는 가로 폭포라고 불리며, 가파르고 좁은 가로 협곡에서 흐른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. 에메랄드색 용소는 중심부 깊이가 3~4m이다.

가로 폭포 주변의 삼림 지대에는 주로 고로쇠나무, 삼나무, 칠엽수가 자라고 있다. 폭포 근처의 밤나무, 단풍나무, 여러 종류의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잎이 선명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수변의 산책로를 뒤덮는다. 몇 그루의 나무에 얽혀 있는 덩굴은 등나무이다.

가로 폭포는 수 세기 동안 방문객들을 매료시켜왔다. 1802년 이 폭포는 아키타에 관한 글로 유명한 여행가이자 박물학자인 스가에 마스미(1754~1829년)의 시 주제가 되었다. 31음절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와카 형식을 따른 그의 시는 근처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다.

*furu yuki ka* 내리는 눈일까?

*hana ka aranu ka* 아니면 옅은 꽃일까, 아닐까?

*yamakaze ni* 산바람에

*sasowaretechiru* 이끌리고, 옮겨지고, 흩어지는

*taki no shira awa* 폭포의 하얀 거품이네

폭포 옆에 있는 목조 건물은 다키노사와 신사이다. 1780년에 지어졌으며, 부동명왕이 모셔져 있다. 부동명왕은 폭포 근처나 외딴 산에 자주 모셔지는 무서운 형상을 한 부처이다.

시라이토 이단 폭포라고 불리는 두 단으로 된 두 번째 폭포는 가로 폭포에서 계곡을 더 올라가면 있다. 가로 폭포 주차장에서 다카야마산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가면 폭포로 갈 수 있다. 소요 시간은 도보로 30분이다.